

주제문을 통한 한국학생의 중국어 학습지도 연구

- 중 · 한 주제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 취 란
(경희대학교)

1. 들어가며

한국학생들이 중국어학습에 있어 중국어가 SVO형의 언어라고 여겼을 것이다. 물론 SVO형 즉 ‘주어-술어동사-목적어’는 중국어의 전형적인 문장어순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만을 가지고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SVO(주어-술어동사-목적어)의 문장배열은 단지 기본적인어순이고 SOV,O(S)V등의 다른 다양한 어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어순이 생긴 원인에 대해 언어 환경에 따라 강조의 필요성에 의해 배열의 순서를 변경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뒷받침이 되는 이론은 바로 역대 언어학자들의 주제문에 관한 설명이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어는 주제 부각형 언어이고, 한국어는 주어-주제 부각형 언어이며, 영어는 주어 부각형 언어라는 주장이다. 중국어 대다수의 문장은 주제(topic)와 평언(comment)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중국어의 큰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배울 때 문장의 주제(主題)의 중요성을 인식해

* 이 논문은 2008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

야 중국어를 잘 배울 수가 있다. 실례로 필자가 어법이나 회화를 가르쳤을 때, 일반적인 주어-술어의 문장구조 지식만으로 중국어학습지도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많이 느꼈다. 다른 각도로 주제를 부각시켜 한국어의 주제문과 비교하면서 설명한다면 더 효과적인 지도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2. 중국어 주제문의 특성

1) 중국어문장의 ‘주어’와 ‘주제’

중국학자들은 일찍이 중국어문장 속의 ‘주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趙元任은 중국어문장 속의 주어와 술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主語跟謂語在中文句子裡的文法意義是主題(topic)跟評述(comment), 而不是動作者(actor)跟動作(action)”“主語就是名符其實的主題, 謂語就是說話人對主題的評述”¹⁾

그러나 趙元任은 중국어문장의 주어가 바로 주제이고 술어는 바로 평언이라는 설명이 주어와 주제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인 설명이어서 리 앤 톰슨과 湯廷池는 주어와 주제가 모두 중국어의 문장성분이며, 서로 다른 통사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구별하여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리 앤 톰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國語句子結構最顯著的特色之一是: 除了‘主語’和‘直接賓語’之文法關係以外, 國語的描述也必須包括‘主題’這個概念. 由於‘主題’在國語文法上所佔的重要性, 所以國語可以稱爲主題明顯的語言”²⁾

1) 趙元任, 《A Grammar of Spoken Chinese》1968, pp.69~70.

2) Li and Thompson 원저 黃宣範역, 《漢語語法》1983, p.15.

리 앤 톰슨은 중국어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법관계이외에 ‘주제’라는 개념도 포함해야하며 ‘주제’는 중국어에서 중요한 문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어가 주제부각형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湯廷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主語與主題是屬於不同範疇的兩個不同的概念, ‘主語’表示‘語法關係’(grammatical relation), 與‘謂語’相對, ‘主題’表示‘言談功用’(discoursal function), 與‘評論’相對, 主語與謂語之間常有句法與語義上的選擇關係, 而主題與評論之間只有語用上之邏輯關係. 主題代表‘已知的舊信息’(old information; theme), 而評論則包含‘重要的新信息’(new information; theme).因此, 依照‘從舊信息到新信息’(from Old to New)的‘語用原則’(pragmatic principle), 主題經常出現於評論的前面, 即句首的位置; 而評論可以包含主語, 所以主題又經常出現於主語的前面……”³⁾

즉 주어와 주제가 각각 다른 범주에 속하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주어’는 어법관계(grammatical relation)의 차원에서 술어동사와 상대되는 것이고 ‘주제’는 담화 화용상의 기능(discoursal function)에서 평언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주제와 주어의 다른 점은 주어는 반드시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행위 또는 상태와 직접적인 의미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주제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담화 속 한 문장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며,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old information)이지만 주제와 상대되는 평언은 주제에 대한 진술이며, 중요한 신정보(new information)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화용상의 기능은 구정보에서 신정보로 전달하는 원칙으로 볼 때 주제는 항상 문장 맨 앞에 출현한다. 다음에 제시한 예문들은 리 앤 톰슨이 그의 이론을 뒷받치기 위해 제시했던 것들 중의 일부인데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각 문장들의 ‘주제’이다.

3) 湯廷池, 〈國語語法的主要論題〉, 《漢語詞法句法論集》, p.163.

- (1) 昨天雪下得很緊.
(어제는 눈이 많이 내렸다.)
- (2) 信封裡裝不進這些照片.
(이 편지봉투는 이런 사진들이 다 담을 수가 없다)
(이 사진들을 편지봉투에 담을 수가 없다)
- (3) 麵我最喜歡吃辣的.
(국수는 내가 매운 것을 가장 좋아한다)
(면류중에서 나는 매운 것을 좋아한다)
- (4) 這件事你不能光麻煩一個人.
(이 일은 내가 한 사람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일에 대해 너는 한 사람에게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
- (5) 天天買菜, 我真不知道該買甚麼好.
(날마다 장을 보는데 정말 무엇을 사야할지 모른다.)
- (6) 張三天去美國我覺得很奇怪.
(장삼이 내일 미국에 가는 거말 야 참 이상하단 말 야)

위의 예문들을 통해 주제의 역할을 맡은 성분이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1)과 (2)는 시간사와 처소이고 (3)과 (4)는 일반명사와 명사구이다. (5)는 동사구이고 (6)은 주술구이다.그러면 (1)의 주어는 雪,(2)는 없고 (3)은 我, (4)는 你, (5)는 我, (6)은 我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리 앤 톰슨과 湯廷池는 구체적으로 주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 a. 수동성분은 문두에 둔다 (名受皆在句首)
- b. 문두에 있는 성분은 확정적 의미 혹은 포괄적 지칭이다. (是定指或泛指的)
- c. 주제 뒤에 휴지(休止) 두어 평언과 분리할 수가 있다. (主題的後面可以停頓, 使其跟評論的部分隔開)
- d. 주제는 문장의 주어를 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언 속에 주어를 포함할 수가 있다.(主題有時可兼爲句子的主語, 也有時評論中包含了主語等.)

다음은 주제의 이런 특징을 통해 주제문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SVO형문장과 주제문의 차이

알다시피 중국어학습자들은 SVO 즉 “주어-술어동사-목적어”의 문장 배열이 중국어문장의 기본적인 어순이라고 중국어를 처음 접하였을 때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你說甚麼我沒聽見’ ‘這件事你負責吧’ 등의 문장들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설명해야하는가? 이런 문장을 원래의 ‘我沒聽見你說甚麼’ ‘你負責這件事吧’ 중의 목적어 ‘你說甚麼’ ‘這件事’를 강조하기 위해 문두로 전치하였다고 설명해야 하는가? 이런 문장에 대해『現代語法講話』(丁聲樹)와『現代語法常識』(張志公)에서는 SVO형의 문장보다 ‘주술술어문’(主謂謂語句)으로 간주하는데, 즉 ‘你說甚麼’ ‘這件事’는 ‘주어’이고, ‘我沒聽見과’ ‘你負責吧’는 ‘주술구’로 해석한 것이다. 이중주어문으로 해석한 것은 전통적인 SVO형의 분석과 다른 것이다. 또한 이런 이중주어문은 다른 각도로 보면 흔히 문두에 있는 ‘주어’를 ‘주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리 앤 톰슨은 다음 두 문장에 대한 분석과 같이 문두에 있는 ‘주어’를 ‘주제’로 간주하였다:

(7)張三我已經見過了.

(8)這棵樹葉子很大.

즉 (7)의 ‘張三’은 ‘주제’이고 ‘我’는 ‘주어’이며 ‘我已經見過了’는 ‘張三’에 대한 진술이다. 이 의미와 중국어의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면 ‘張三’은 내가 이미 만나보았다”라고 하고 “나는 張三을 내가 이미 만나보았다”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8)의 ‘這棵樹’는 ‘주제’이고 ‘葉子’는 ‘주어’이며 ‘葉子很大’는 ‘這棵樹’에 대한 묘사이다. 번역하면 ‘이 나무는 잎이 매우 크다’라고 하고 ‘이 나무의 잎이 크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你說甚麼我沒聽見’을 습관적으로 목적어를 문두에 앞당겨서 만든 문형이라는 설명보

다는 화용상으로 사용하는 주제문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수학자의 의견이다. 그리고 이런 문형은 중국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 이점은 중국어가 주제문 부각형 언어라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언어현상이다.

3) 관용적인 주제문의 실례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어문장은 다 고정적으로 SVO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SOV,OV,OSV등으로 상황(語境)에 따라 언어의 표현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 (9)我甚麼都愛吃(SOV)
(나는 무엇이든지 잘 먹어)
- (9)' *我都愛吃甚麼 (SVO)
(나는 무엇을 다 잘 먹어)
- (10)這菜怎麼做呢?"(OV)
(이요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죠?)
- (10)' 怎麼做這菜呢?(VO)
(이요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 (11)那件衣服我要送給別人(OSV)
(그 옷은 누군가에게 선물할 거 아)
- (11)'我要送那件衣服給別人(SVO)
(나는 그 옷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려고 해)

위에서 제시한 (9)의 표현은 고정적인 표현이고 (9)'는 SVO의 어순이 오히려 잘못된 문장이 된다, 한국어로 번역하여도 그 또한 부자연스럽다. (10)은 중국어에서 상용되는 의문문 형식이고 (10)'의 문장은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표현상 약간 부자연스럽다. (11)'번의 문장은 어법상 하자 없는 문장인데 문두에 강조하고자 하는 정보가 (11)과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억지로 다 SVO형의 문장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중국어

는 주제부각형의 언어인 것을 인식시키고 언어 환경에 맞추어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9)와 (10)의 문장은 상용적인 표현이고 이런 상용적인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어야하며 (11)과 (11)'은 주제가 다른 문장이니 표현 시 ‘那件衣服’를 강조하고 싶으면 문두에 두고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我要’를 문두에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주제문은 주로 대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고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주제문은 대화 맥락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것인데 우선 중국어에서 상용되는 OV형, OSV형과 기타 이중주어문에 대해 설명하겠다. OV형과 OSV형의 문형들 또한 ‘의미상의 피동문’이라고 한다, 즉 이런 문형의 주어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 목적어 위치에 두지 않고 문두에 두어 주제(화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문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상용되는 표현들이다.

- a) 술어는 ‘受,挨,遭’ 등의 動詞로 充當하여, 그 뒤에 動詞혹은 名詞를 목적어로 삼고 의미상의 주어가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고 있다(혹은 당했다)는 문장유형이다. 이런 문장은 의미상으로 목적어의 위치에 있어야 할 성분이 주어의 위치에 놓여서 주제화된 것이다:

(12) 這種新產品很受群眾歡迎.(OV)

(이런 신상품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13) 這兒不久前遭過旱災,(OV) 所以農人收成不好.

(이곳은 얼마 전에 가뭄 피해를 입어서 농민들은 수확이 좋지 못하다)

- b) 술어動詞는 ‘加以’로 充當하여, ‘加以’ 이말 자체는 어떤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그 뒤에 동반된 구체적 의미를 갖춘 동사를 도와서 사람이 어떤 사물을 어떻게 다루는 지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유형이다. 이런 문형은 항상 처리된 사물을 문두에 두고 주제화시켜 문장을 구성된 것이다:

- (14) 這些困難應該加以解決.(OV)
(이러한 어려움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 (15) 大家的建議我們要加以認真考慮.(OSV)
(모두의 의견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 c) 술어動詞는 ‘得到’로 充當하여 뒤에 동반된 동사와 함께 어떤 사물이 어떻게 처리된 것을 설명하는 문장유형이다. 이런 문장도 처리된 사물을 문두에 두고 주제화시킨다:
- (16) 他的善行應該得到表揚.(OV)
(그의 선행은 찬찬을 받아 마땅하다)
- (17) 由於此種填鴨式的教育，一般孩子的才能都得不到發揮.(OV)
(이런 주입식 교육법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재능이 발휘되지 못한다)
- d) 이런 문장들은 술어動詞가 ‘值得’으로 充當하여, 그 뒤에 동반된 동사와 함께 어떤 사물이 어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처리된 사물을 문두에 두어 주제화시킨다:
- (18) 這種經驗值得推廣.(OV)
(이런 종류의 경험은 널리 보급될 만하다)
- (19) 他那種刻苦鑽研的精神值得我們學習.(OV)
(고생을 참아가며 깊이 연구하는 그의 정신은 우리가 배울만하다)
- e) 이런 문장들은 ‘由’ ‘歸’ 등 친치사로 동작자를 끌어내어 어떤 사물이 그 동작자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런 문장은 겹어문에 속하고 문두에 있는 주어는 술어동사의 지배를 받는 수동자다. 마찬가지로 이 수동적인 주어도 목적어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두에 두어 주제화시킨 것이다:

- (20) 我這次去國外是因公務, 一切的旅費都由公司負擔.(OV)
 (내가 이번에 외국에 나가는 것은 공적인 업무 때문이라서 경비 및 일체의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 (21) 今天的教室歸男同學打掃.(OV)
 (오늘 교실 청소는 남학생들이 맡았다)

f) 술어를 ‘動詞+不得’으로 표현하면 문두에 있는 주어는 수동적이고 술어 동사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문장의 주어도 주제화시킨 것이다:

- (22) 這種女人愛不得.(OV)
 (이런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된다.)
- (23) 酒肉朋友交不得.(OV)
 (먹고 마실 때만 어울리는 친구와 사귀어서는 안된다)

g) 문장 속에 술어動詞가 앞에 ‘好’ ‘難’ ‘容易’ ‘夠’ 等 形容詞와 같이 표현하면 문두에 있는 주어도 수동적이고 주제화된 것이다:

- (24) 這件事難辦.(OV)
 (이 일은 처리하기가 어렵다)
- (25) 這點錢怎麼夠用呢?(OV)
 (고작 이런 푼돈을 어디에 쓸 수 있겠어?)

h) 술어動詞는 ‘淋’ ‘晒’ ‘吹’ ‘燙’ 等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문장의 주어는 늘 수동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주제의 역할이 강한 것이다:

- (26) 衣服晒乾了.(OV)
 (옷은 말렸다)
- (27) 國旗整天淋着雨.(OV)
 (국기는 하루 종일 비에 맞았다)

- i) 動詞가 다른 전치사와 結合하여, 複合動詞로 이룬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복합동사들이 예를 들어 ‘做成’ ‘寫成(在)’ ‘設計成’ ‘登在’ ‘放在’ 등이 늘 수동적인 주어와 의미상의 피동문을 이룬다, 문두에 있는 이런 수동적인 주어가 주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8) 那些布已經做成一件衣服了.(OV)

(저 옷감들은 이미 옷으로 만들었다)

(29) 他的文章登在有名的雜誌上了.(OV)

(그의 글은 유명한 잡지에 실렸다)

- j) 어떤 문장들의 동사가 고정적으로 어떤 허사 혹은 연사(접속사)와 결합하여 관용적인 의미상의 피동문을 이루어진다, 이런 문장들의 문두에 있는 수동적인 주어가 주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30) 那人的名字我怎麼也想不起來.(怎麼~也)(OSV)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리 생각해 내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는다.)

(31) 中文報他看都看不懂.(~都~不)(OSV)

(중국 신문은 그가 전혀 읽지 못한다.)

(32) 這件事他想了又想.(~了~又)(OSV)

(이 일은 그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33) 巧克力寶寶要了還要.(~了~還)(OSV)

(초콜릿은 아기가 달라고 또 달라고 했다)

(34) 這東西你想買就買吧.(~就~)(OSV)

(이 물건은 네가 사고 싶으면 그냥 사거라)

(35) 那兩段古文他一看就懂.(一~就~)(OSV)

(그 두 단락의 고문은 그가 보자마자 이해했다)

(36) 那副山水真是越看越愛.(越~越~)(OV)

(그 산수화는 정말 볼수록 애정이 간다)

(37) 鋼琴你再練也練不會.(再~也~)(OSV)

(피아노는 네가 아무리 연습해도 잘 할 수 없다)

(38) 這首歌我學了好幾遍才會.(~才~)(OSV)

www.kci.go.kr

(이 곡은 내가 몇 번을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부를 수 있었다)

(39) 外語不是一天就可學會的。(是~的)(一~就~)(OV)

(외국어는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k) 술어가 動補식의 구로 이루어진 문장이면 그의 목적어는 늘 문두에 두는 것이다:

(40) 這種生活我過得夠了。(OSV)

(이런 생활은 내가 충분히 보냈다.)

(41) 房間他打掃得很乾淨。(OSV)

(방은 그가 아주 깔끔하게 청소했다.)

(42) 白天的工夫她都花在學校裡。(OSV)

(낮 시간은 그녀가 모두 학교에서 보낸다.)

(43) 她平日活潑的姿態都看不見了。(OV)

(그녀는 평소에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없다)

(44) 這輛車買貴了。(OV)

(이 차는 비싸게 주고 샀다.)

(45) 這部電影我很想再看一遍。(OSV)

(이 영화는 내가 다시 한 번 보고 싶다)

(46) 漢語我已經學了三年了。(OSV)

(중국어는 내가 배운지 3년이다 되었다.)

l) 어떤 문장들의 주어가 “하나도 예외 없이”“모두 다”의 의미들 가진 관용적인 형식으로 수동적인 주어인데 주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47) 甚麼話也不想說。(OV)

(어떤 말도 하고 싶지가 않다)

(48) 樣樣都得自己動手。(OV)

(여러 가지 알들은 모두 직접 처리한다)

(49) 所有的書都整理好了。(OV)

(모든 책은 정리가 끝났다.)

- (50) 每一件事他都處理得很好.(OV)
(모든 일은 그가 깔끔하게 잘 처리한다)
- (51) 今天一頓飯也沒吃, 餓死了.(OV)
(오늘은 밥 한 공기조차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m) 어떤 疑問文들이 늘 수동적인 주어를 가진다, 이런 주어가 주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52) 去外國的手續怎麼辦?(OV)
(출국 수속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53) 這麼好的衣服你在哪兒買的?(OSV)
(이렇게 멋진 옷은 네가 어디서 샀니?)
- (54) 那件事有多麼難解決, 你知道嗎?(OV)
(그일은 얼마나 해결하기 힘든지, 네가 아니?)
- (55) 日期爲甚麼不快點兒決定呢?(OV)
(날짜는 왜 빨리 결정하지 못하니?)

以上에 제시한 예문들을 통해서 중국어 속에 수동적인 성분을 문두에 두어 돌출시켜 주제화된 문장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많은 관용적인 주제문에 대해 학생들이 번역했을 때 거의 다 문두에 있는 수동성분을 목적어격의 조사(을 혹은 를)를 붙여 표현한다. 예를 들면:

- (31) 中文報他都都看不懂.(~都~不)(OSV)
(중국 신문은 그가 전혀 읽지 못한다.)
(*중국 신문을 그는 전혀 읽지 못한다)

(*他看中文報都看不懂)
- (40) 這種生活我過得夠了.(OSV)
(이런 생활은 내가 지겹도록 보냈다.)
(*이런 생활을 나는 지겹도록 보냈다)
(*我過夠這種生活了.) (나는 이런 생활을 지겹도록 보냈다)

위에 제시한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번째의 문장(*표시가 있는 것)으로 번역하고 또한 이런 문장을 맞춰 *표시의 중국어문장을 만들었다. 그것은 학생들이 중국어의 주제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SVO 어순의 선입견 때문이다. 이런 문형이외에도 중국어의 명사술어, 형용사술어의 이중 주어문(주술술어문)과 SOV형등의 문형들도 관용적인 주제문들이다.

(56) 我牙有點疼.

(나는 이가 좀 아프다.)

(57) 我們單位年輕人不少.

(우리 직장은 젊은 사람이 적지 않다.)

(58) 這種汽車性能好, 樣子美觀, 價格適宜.

(이런 종류의 자동차는 성능이 뛰어나고, 외관이 아름답고, 가격도 적절하다.)

(59) 小王體重七十一公斤, 身高一米七二.

(왕군은 체중이 71킬로이며, 신장이 172센티다.)

이런 문장들이 한국어의 “코끼리는 코가 길다”와 비슷한 구조의 문장들이다, 주술구조의 술어는 문두에 있는 주어를 설명하거나 묘사한 것이다, 이문형은 아주 유용하며 특히 회화체에서 많이 쓰인다. 이런 문형은 간혹 몇몇 학생들이 “나는 이가 좀 아프다”고 안하고 “나의 이가 아프다”고 한다. 그렇지만 한국어에도 같은 표현형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잘 설명하면 쓰기 쉬운 문형이라 할 수가 있다.

3. 주제문을 통한 중국어의 지도

1) 주제문의 구조와 화용상의 기능

이상, 중국어에서 관용적인 주제문의 문형들을 제시해주었지만 이런 문형들이 한 문장 식으로만은 담화 속에 그의 주제의 기능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나가 여러 문장의 문맥 속에 그의 주제(화제)기능을 알아보려고 한다. 曹逢甫는 “主題在漢語中的功能研究”(A Functional Study of Topic in Chinese)에서 담화 속에 주제의 어의기능은 여러 문장으로 확대시킬 수가 있다고 했다. 즉 첫 문장의 주제가 뒤에 연결된 여러 주제문의 주제 즉 화제가 되는 것이다. 주제는 늘 여러 연결된 주제문의 문두에 위치하고 그 뒤에 “啊, 呀, 呢, 嘛, 吧”등의 어기조사가 달려 나타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휴지를 두든지 이렇게 뒤의 문장들과 분리할 수가 있다.4) 예를 들면:

- a. 這棵樹的葉子啊, 又細又長, 很難看.
- b. *這棵樹的啊, 葉子又細又長.
- c. 這棵樹啊, 葉子又細又長, 樹幹又粗又大, 真難看.
- d. *這棵樹葉子啊, 又細又長, 樹幹又粗又大, 真難看, 我不要買了.

즉 a의 “這棵樹的葉子”는 뒤의 문장 “又細又長”, “很難看”의 주제되는 것이다. b는 앞 절과 뒤 절을 연결시킨 주제가 없다. c는 “這棵樹”는 “葉子又細又長”, “樹幹又粗又大”, “真難看”등문장의 주제이고 d는 c과 다르게 “這棵樹葉子”는 단지 뒤의 “又細又長”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 전체의 주제가 아니다. 문장의 형식을 보면 c는 d보다 간결하고 주제하나로 연관시켜 느슨한 느낌이 없다. 다시 주제가 여러 문장을 연결시키는 구조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主題 主語 主題 主語 主題或主語
 (60) 那棵樹 花 小, 葉子 大, _____ 很難看, 所以我沒買.
 主題或賓語

이 말은 하나의 主題와 네 개의 문장으로 이룬 것이다, 원칙으로 문장마다 主語가 있지만, 어떤 것은 비어있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생략된 것이다. “那棵樹”는 이말 전체의 주제인데 마지막의 문장 “我沒買”의 의미상의 목적어

4) 曹逢甫, 『主題在漢語中的功能研究』, 1979, pp.89~102.

도 된 것이다. 즉 앞에 언급했던 OSV형의 주제문의 주제이다. 중국어의 이런 문장구조(주제 혹은 주어가 생략된 것)는 주어부각형의 영어와 달리 엄격한 어법을 따지지 않고 언어 환경에 따라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어순이 바뀐 것은 중국어의 특징이고 중요한 표현법이다.

2) 주제문을 통한 중국어의 학습지도

앞 장에도 설명했지만 한국학생들이 중국어의 주제문에 대해 잘 모르고 번역과 중국어표현은 SVO의 어순과 어의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한 숙제에서 표현한 문장을 보면:

(61) 你都忘了我對你說的, 等於我白說了.

(너는 내가 너에게 말 한 것을 모두 잊었다, 정말이지 쓸데없이 지껄인 셈이다.)

이 말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장은 틀리지 않지만 앞과 뒤를 연결한 주제가 없다. 만약에 이 말을 “我對你說的你都忘了, 等於我白說了.”(내가 너한테 말한 것은 네가 다 잊어버렸어 정말이지 쓸데없이 지껄인 셈이다)로 바꾸면 이 “我對你說的”주제가 두 문장을 긴밀히 연결시켜 한층 더 간결한 문장으로 된 것이다.

(62) 我除了長城以外, 都去過別的有名的名勝古蹟了.

이 말의 표현은 정확하지 못했다, 뒤의 문장은 수동성분을 반드시 문두에 위치해야 정확한문장이 된 것이다. 즉“我除了長城以外, 別的有名的名勝古蹟都去過了”.(나는 만리장성 외에도 다른 유명한 명승고적에 가 보았다)로 고쳐야한다. 그 것은 학생들이 SVO의 어순에서 탈피하지 못해서 범한 오류이다.

(63) 關於判決人的罪和決定人的死亡, 都是只有神能做到的, 所以我都反對死刑制度, 打胎和安樂死.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것과 사람의 죽음을 결정짓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와 낙태, 안락사에 나는 반대한다.)

이말의 주제(화제)는 "關於判決人的罪和決定人的死亡"이다, 마지막 문장의 "死刑制度, 打胎和安樂死"는 그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마지막 문장의 주어"我"의 앞에 두어야 전체문장의 주제와 연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의 말은 "關於判決人的罪和決定人的死亡, 都是只有神能做到的, 所以死刑制度, 打胎和安樂死我都反對."로 고쳐야 한다.

학생들이 범한 이 오류도 SVO어순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이상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어의 담화 구조는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담화구조로 표현해보면 학생들이 더 쉽게 중국어의 어감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즉 앞 절에 언급했던 (60)번예문의 문장구조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그 나무는 꽃이 작고 잎이 커 보기 싫어서 사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한 자연스러운 표현이 같다. 이렇게 우선 학생들한테 중국어의 주제부각형의 특성을 설명하고 SVO형과 다른 표현을 연습시키며 고쳐주고 또한 중국어의 어감을 살려 한국어의 주제문으로 번역하면서 설명하면 중국어학습지도에 있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중국어회화교재에서 나온 대화를 뽑아서 설명해보겠다.

- a. 漢語你們學了多長時間了?
- b. ____我們學了一個多月了.
- a. ____你們說得真不錯.
- b. 哪裡哪裡, ____還差得遠呢!
- a. ____你們還準備學多長時間?
- b. 我今天就回國, ____他們還要再學兩個星期.

위에 있는 a와 b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漢語"라는 이 수동성분은 바로 이 대화의 주제(화제)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중에 비어 있는 부분은 이 주제"漢語"를 생략한 것이다. 이런 대화 속에 주제된 "漢語"를 생략하지 않

으면 아주 이상한 대화가 돼버린 것이다. 또 다른 대화 하나를 예를 들어 구조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a. 這盤磁帶你聽過了嗎?
- b. (主題)(主語)沒聽過, (主題或主語)好聽不好聽?
- a. (主題或主語)可好聽了, (主題)我聽過好多遍, (主題)裡邊的歌我差不多都會唱了.

이상의 두 대화의 담화구조를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또한 그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본다. 우선 학생들의 번역을 들어본다. 아마도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번역할 것이다:

- a.당신들은 중국어를 얼마동안 배우셨습니까?
- b.우리들은 한 달 넘게 배웠습니다.
- a.당신들은 정말 잘 하시는군요.
- b.무슨 말씀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 a.당신들은 앞으로 얼마동안 더 배우려고 합니까?
- b.저는 오늘 귀국하고, 그들은 아직 2주 동안 더 배우려고 합니다.
- a.이 녹음테이프(음악)를 들어보셨습니까?
- b.아니요, 듣기 좋은가요?
- a.듣기 좋습니다.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노래들은 거의 다 노래할 수 있는걸요.

이상과 같이 학생들이 대화 첫 문장의 주제를 무시하고 목적어격“를”을 붙여 할 거 같다 물론 “你們學漢語學了多長時間了?”과 “漢語你們學了多長時間了”의 의미차이가 별로 없지만 표현의 언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대화중의 주제“漢語”는 그 전체 대화의 흐름과 문맥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위에 있는 대화는 화자끼리 이미 “漢語”에 대해 말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漢語”를 문두에 두어 연관된 말도 간결한(주제를 생략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다른 음악이 아니고 이 음악“這盤磁帶”을 지정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我聽過”(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혹은 “他聽過”(그는 들어본 적이 있다)와 대조하면서 “你聽過這盤磁帶了嗎?”(당신은 이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의 “你聽過”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대화를 중국어의 어감을 살려 다음과 같이 다시 번역해보겠다.

- a. 중국어는요, 당신들 얼마동안 배우셨어요?
- b. (중국어)우리 한달 넘게 배웠어요.
- a. (중국어)정말 잘 하시네요.
- b. 별말씀을요, 아직 멀었어요.
- a. 당신들 앞으로 얼마동안 더 배우실 거예요?
- b. 저는 오늘 귀국하고요(떠나요, 계속 못 배워요), 다른 분들은 2주 더 배울 예정예요.

- a. 이 음악은 들어보셨어요?
- b. 아니요, (노래)음악 좋은가요?
- a. (이 음악)정말 좋아요, 전 여러 번 들었어요, (이 테이프)여기 수록된 노래는 거의 다 부를 수 있어요.

이상과 같이 다시 중국어의 대화처럼 문두의 주어를 주제화시켜 한국어로 번역해보았다. 주제가 생략된 자리에 괄호로 표시해놓았다. 이렇게 중국어 학습에 있어 한국어와 비교하면서 중국어의 어감과 가깝게 학생들한테 설명하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파악하고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4. 나오며

본고는 중국어의 주제부각형언어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학생의 중국어 학습지도에 있어 전통적인 중국어의 SVO어순에 탈피해 중국어의 주제문과 한국어의 주제문을 대조하는 지도방법을 모색해보았다. 즉 중국어 담화속의 문장의 어순이 언어 환경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데 항상 학생들한테 중국어의 SVO형의 틀에 가르치면 학생들이 언어 환경에 맞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는

중국어를 배우게 되고 중국어의 주제문 특성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중국어의 담화구조를 설명해주고 중국어는 한국어와 가까운 것을 인식시켜 중국어 담화의 어감을 살려 한국어식의 주제문으로 번역해 보여준다. 이런 대조하는 방법을 이용해 학생들한테 설명해주면 학생들이 중국어의 어감과 특성을 쉽게 파악하게 되고 더 자연스러운 중국어를 구사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曹逢甫, 《主題在漢語中的功能研究》, 北京, 語文出版社, 1995.
- Li and Thompson 原著, 黃宣範譯著, 《漢語語法》, 臺北, 文鶴出版有限公司, 1983.
- Chao, Y. R. (조원임) 《A Grammar of Spoke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1968.
- 湯廷池, 〈主語的句法與語義功能〉 〈主語與主題的劃分〉 《國語語法研究論集》, 臺北, 臺灣學生書局, 1979.
- 趙恩柱, 〈談‘受’‘挨’‘遭’和‘由’〉 《中國語文》, 中國語文雜誌社編, 北京, 中國科學出版社, 1956. 11.
- 王陽畛, 〈談‘加以’的語法特徵〉 《中國語文》, 中國語文雜誌社編, 北京, 中國科學出版社, 1959.11
- 龔千炎, 〈現代漢語的受事主語句〉 《中國語文》, 中國語文雜誌社編, 北京, 中國科學出版社, 1980. 5.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eaching Chinese and Korean Topic Sentences

Chui-Lan Choo

Chinese is a topic-prominent language, so when we learn Chinese we should know the discourse function of the Chinese language. Most of the Korean student think Chinese sentences should appear in the order of S-V-O and they always make mistakes when they use Chinese. I think Korean is very similar with Chinese in the discourse function. Hence, in this paper, I try to find a method of teaching Chinese topic sentence. It does so by comparing Chinese with Korean in the light of discourse function. I think when Korean student know how to use Korean topic sentence to explain the discourse functions of the Chinese language, they will not make similar mistakes.

With this understanding in mind, chapter 2 tries to show various topic sentences to prove that 'topic' is very important in Chinese sentences. This is why we say Chinese is a topic-prominent language. In chapter 3, I analysis the sentences that students made, and highlight the reasons why they made mistake. The result lies in the reason whereby they always think Chinese should appear in the order of S-V-O. They do not understand why some sentences appear in the order of O(S)V or S-O-V. It show that they do not know what is topic sentence and do not know how to make topic sentences. Sometime I have them translate them into Korean, but they also make Korean sentences like in the order of Chinese S-V-O. Therefore, I think, under this circumstance, to let them to translate and to speak in Korean in topic sentence, get some feelings about Chinese topic sentences, and tell and make Chinese topic sentences are naturally critical in their training.

Key Words

주제문, 한중비교, 학습지도

teaching chinese korean topic sentence

논문접수일: 2010. 2. 26.

심사완료일: 2010. 4. 10.

게재확정일: 2010. 4. 15.